중남미지역학 학사학위논문

21세기형 플랜테이션 농업: 인도와 브라질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영 철

2014년 11월

부산 외국어 대학교

중남미비즈니스 연계전공

김 정 국

21세기형 플랜테이션 농업: 인도와 브라질 중심으로

러시아인도통상학부
20081307 김정국

I. 서론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의 원인과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II. 플렌테이션 성장과 형태

II-1. 플랜테이션 농업의 정의
II-2. 플랜테이션 농업의 발달 배경
II-3.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의 특징

Ⅲ.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 과정

Ⅲ-1. 근대 자본주의와 세계체제론, 그 안의 플랜테이션 농업
Ⅲ-2. 잔혹한 설탕이 이룩한 자본주의
Ⅲ-3. 세계로 퍼진 커피향

Ⅳ. 플랜테이션 농업의 폐해

Ⅳ-1. 단일작물 재배에 의한 경제종속과 식량 문제의 취약성
Ⅳ-2. 자연환경 파괴 문제
Ⅳ-3. 소수에 의한 대토지 소유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Ⅳ-4. 자본주의 체제의 주변부로 전락과 바이오연료의 명과 암

Ⅴ. 플랜테이션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

Ⅴ-1. 인도와 브라질의 토지개혁
Ⅴ-2. 다국적 자본의 랜드그랩 현상과 21세기형 플랜테이션 농업
Ⅴ-3. 플랜테이션 농업의 여러 대안

VI. 결론

인도와 브라질의 21세기형 플랜테이션의 농업의 경쟁력 방안

Ⅶ. 참고문헌

I. 서론

과거 서구세계는 인도와 브라질로부터 유입된 금,은 등 막대한 광물자원과 노예제도에 기반 한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 덕분에 근대화와 산업화에 성공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도와 브라질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주변부로 전락하여 하위계층들은 여전히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또한, 환금작물 재배에 적합한 인도와 브라질의 기후와 토양은 '하얀 황금'에 눈이 멀었던 유럽인들을 고무하여 신대륙의 비옥한 산림과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잔악한 노예무역과 대규모 노예제도를 통해 인류愛적 가치마저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풍부한 천연자원과 비옥한 자연환경이 역설적으로 인도와 브라질의 상당한 저발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유럽의 식민지였던 인도와 브라질 두 국가에서 나타나는 플랜테이션 농업은 현재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산업이 플랜테이션 농업에 여전히 집중되어있는 구조적인 모순은 그 연결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 엘리트 중심의 이중사회 구조의 종속화를 단칼에 도려내기란 불가능한 모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플랜테이션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은 분명 있다. 오늘날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은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지만,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1C형 플랜테이션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잔혹한 설탕과 커피의 역사가 이룩한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살펴보고, 자본주의화와 단일작물 재배에 의한 경제종속과 취약성문제, 자연환경 파괴와 식량부족 문제, 소득불균형 문제 등을 살펴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 강도,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와 그 이면에 있는 대농장주와 다국적기업의 만행, 소수에 의한 대토지소유,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은 상품에 의한 교역조건의 악화,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에 의한 경제위기 메커니즘, 최근 랜드그랩[1](땅뺏기 현상)과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에 의한 경제위기 가능성, 다국적기업 거대자본과 식량자원주의에 대한 선진국들의 투기자본 과열에 따른 제 3세계 경제후퇴와 종속 등이 문제점을 다룰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짜 문제가 되는 엘리트 중심의 토지소유 집중현상과 환금작물로 여겨지는 단일 작물의 고착화문제를 살피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플랜테이션 농업을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새로운 21세기형 경쟁력이나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플렌테이션 성장과 형태, 발전과정, 문제점과 대안을 찾고, 향후 인도와 브라질이 나아갈 21세기 플랜테이션 농업화의 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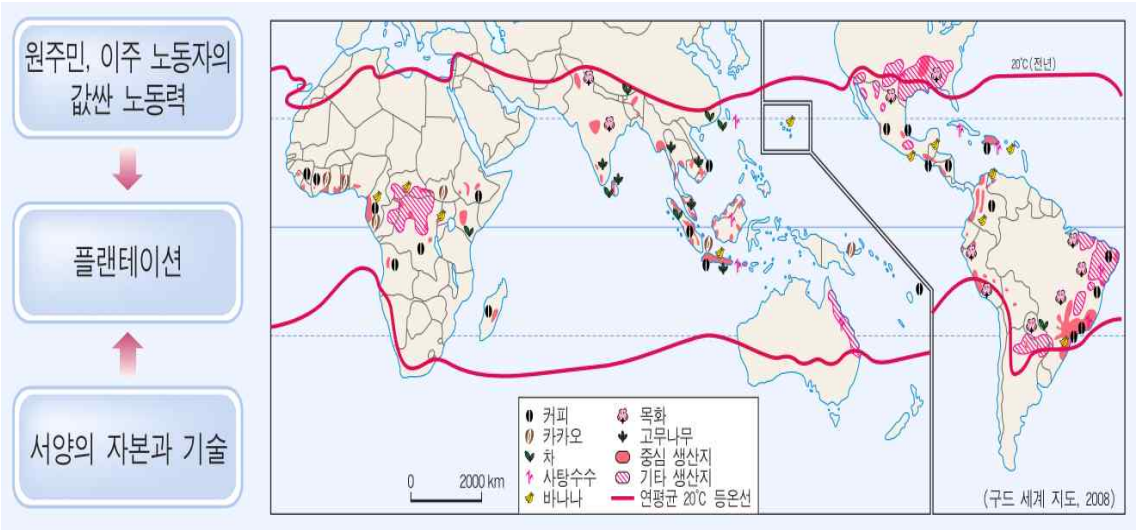
---

1) 브라운 미 지구정책연구소(EPI) 소장은 세계미래학회(WFS)가 내는 격월간 <퓨처리스트> 1·2월호에 기고한 '식량, 연료,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땅 뺏기'란 제목의 글에서 '랜드그랩'을 이렇게 정의했다.

II. 플렌테이션 성장과 형태

II-1. 플랜테이션 농업의 정의

“플랜테이션이란 발달한 농업으로 제3국가들에게 열대 기후 지역에서 선진국들에게 필요한 사탕수수, 커피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대농장 중심의 농업이다. 플랜테이션 농업은 주로 열대, 아열대 기후인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으로, 불변의 재화인 광활한 토지와 서양인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 원주민과 이주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이다. 주로 환금작물로 여겨지는 단일경작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재배되는 것으로는 고무, 사탕수수, 카카오, 담배, 커피, 삼, 목화 등이 있다.” [위키백과, 플랜테이션 농업의 정의]



< 출처: 플랜테이션 농업의 정의, 구드 세계 지도, 2008>

플랜테이션 농업의 원래의 뜻은 식민취락화[2]를 뜻한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기호식품으로서, 열대기후지역에서 백인자본과 원주민의 노동력에 의한 단일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업으로 예전에는 재식농업으로 번역하였으나 최근에는 열대상품농작물 재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의 본원적 축적기에 있어서의 소위 근세식민제도에서 비롯하여 하나의 이질적인 우클라드로 되고 제국주의 중에 있어서 그 보충적 착취토양으로 되고 있는 전근대적 농업대기업을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자본에 의한 기업이지만 그 자본은 전기성을 가지는 것이며 노동력은 노예 · 기타의 비자본주의적 성질을 가지고 전근대적인 대토지소유를 전제로

2) 제국이 열대 · 아열대 지역으로 농업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루어 놓은 농업의 한 형태를 말한다. 서구 제국은 16~17세기부터 식민지의 농업 개척 과정에서 현지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기호품과 공업 원료를 단일 경작하는 기업적인 농업 경영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식민 취락화(植民聚落化)를 뜻하는 플랜테이션이란 말로 불리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플랜테이션 [plantation]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사전, 2002.2.5, (주)신원문화사)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과 같이 자본가적인 견해가 지배적으로 행해지는 곳에서는 잉여가치가 이윤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플랜테이션이 자본주의적 대농경영인 것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II-2. 플랜테이션 농업의 발달 배경

<출처:설탕의 세계사,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 중앙선데이, 2010.03>

15세기 이후 서양인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며 진출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산업혁명 이전에 포르투갈은 브라질에 도착하고 그 출발점에서 산업혁명 이후 열강들이 인도나 브라질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많은 물품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서 향신료나 설탕, 담배 등을 얻기 위해 토지와 자본,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 시초이다.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자치를 획득해 나가고 독립을 이루어 냈으나, 서양의 자본과 기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농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또 초기 신대륙의 플랜테이션은 근대의 삼각무역[3]을 낳았다.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통해 시작하자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도 대서양의 패권을 장악하고 삼각무역에 뛰어들었다. 이런 상황은 19세기까지 이어졌고, 근대의 플랜테이션은 삼각무역과 노예무역을 더욱 성황하게 했다. 결국 유럽인들의 상품작물재배, 유럽열강의 분할통치, 식민지배와 지역 분쟁에서 항해술의 발달은 노동력 공급을 위한 노예무역을 낳았고 플랜테이션 농업의 발달 배경에는 유럽 열강의 기호 식품과 원료 확보에 대한 수요 증가로 확대된 것이다.

인도와 브라질 두 국가도 식민지에서 독립을 이루어 냈지만, 이 역시 플랜테이션 농업중심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초기 식민 지배자에서 과두재벌들과 오늘날 대농장주와 다국적기업의 결탁으로 이어지는 종속구조에서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다.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의 생산물은 세계시장의 전개 하에서 상품으로서 판매된다. 그것은 주로 열대 · 아열대의 특산물인 향료 · 커피 · 차 · 사탕 · 담배 · 면화 · 고무 · 마 등을 주로 단일재배에 의해 생산되는데, 여기서 단일재배의 목적은 플랜테이션 농업을 행하는

3) 사이에 제 3국을 개입시켜서 상대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제 3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수지균형을 꾀하는 무역방법이다. 일반적으로 2국 간에서만 무역이 행해지면 편무역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 3국을 개입시켜 3국 전체로서 채권과 채무의 상쇄가 가능토록 꾀하는 무역 방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삼각무역 (용어해설)

인도와 브라질 두 국가의 어떠한 자급자족이나 경제적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필요로 하거나 세계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 작물이라는 것에 있다.

II-3.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의 특징

먼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의 특징은 내륙지역에 커피 같은 상품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해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 같은 작물이 재배되는 큰 특징이 있다.
커피와 사탕수수뿐만 아니라 면화와 고무, 용설란, 커피, 열대과일 등 중남미의 비옥하고 광활한 토지에서 플랜테이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http://blog.cyworld.com/wowbaek/214350 라틴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 현황>

초기에 식민 지배자, 과두재벌을 지나, 대농장주 중심의 토지소유 독점으로 대규모 노예노동에 기반한 대형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설탕, 커피, 담배, 면화 등을 생산했다. 브라질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원주민의 강제노동과 극도로 불평등한 경제 및 정치 분배구조를 창출하였고 이런 플랜테이션 농업의 구조는 다시 경제와 정치권력을 독점한 소수 엘리트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제도들로 발전되어 이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열대성 혹은 아열대성의 기후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구성되어 대표적인 커피나 사탕수수 같은 환금작물 혹은 단일작물에 기초하고 있는 브라질 플랜테이션 농업은 식량자원이 아닌 처음부터 세계시장을 지향한 상품 작물인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상품 작물만 재배하기 때문에 식량자원을 생산할 토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또, 브라질은 소수에 의한 대토지소유가 나타난다. 대농장 소유는 독립된 자영 농민층의 성장을 방해하여 빈부격차의 문제가 생기고 비 자유 , 강제 노동력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소득불평등 또한 자유롭지 못하고 노동의 착취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전근대적[4] 대토지소유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과 최근에는 대농장주와 다국적기업의 실효

4) 봉건사회·고대사회 및 원시사회를 지칭하는데, 특히 봉건적 요소와 아시아적 요소가 혼재하여 근대화를 막고 있던 사회를 가리킬 때도 있다. 사회발전에 있어서 근대사회의 출현은 역사상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 하나가 폐쇄적 공동체를 최종적으로 해체하는 '개화된 사회'의 출현이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봉건사회나 고대사회 및 원시사회는 모두 폐쇄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폐쇄된 사회'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적 지배를 받는 또 다른 형태의 농업식민지로의 전락이라 볼 수가 있다.

<출처: http://blog.cyworld.com/wowbaek/214350 인도 플랜테이션 농업 지역 中>

반면, 근대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써, 동인도회사가 인도 내에 들어와 약 100년 동안 근대화수탈을 당했다. 동인도회사는 직접통치와 간접통치를 자행했는데, 이로 인해 인도의 가내수공업은 몰락했고, 원자재공급이나 플랜테이션 산업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차와 설탕, 아편 같은 영국의 필요에 의한 기호식품으로서의 플랜테이션 산업만이 자행되었고, 펀잡 지방이나 데칸고원 등 대표적으로 웨스트 뱅갈 앗삼 지역이나 비하르 지방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플랜테이션이 시작되었고, 식민통치가 끝난 지금 현재 여전히 성횡 중이다. 문제는 단일작물로 인한 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고,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인도도 '자민다르'[5]라고 하는 대농장주의 횡포도 심했다. 또한, 이 지역은 인도에서 가장 최하 빈곤지역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플랜테이션 농업에 집중화로 내수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며, 발전하지 못하였다. 또, 단일 작물, 상품 작물, 환금 작물로 불리는 대규모 커피나 사탕수수 같은 생산물에 의존하게 되면서, 1870년대 웨스트 뱅갈 지역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이 웨스트뱅갈 지역 인구의 4분의1이 아사했다. 이러한 재난의 원인이 동인도회사의 수탈과 플랜테이션으로 인한 전통경제 체제의 붕괴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초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지리상의 발견과 중상주의 정책에 의한 세계 시장 확보였다. 그런데 중국 명나라 때 정화가 이끄는 원정대가 동남아, 인도를 거쳐 서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한 사실을 보면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사건이 단독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명의 정화 원정대는 지리상의 발견은 했을지라도 철저하게 관의 입장에 의한 봉건적 행동이었던 반면에 그 후 유럽에서의 지리상의 발견은 시장 개척이 사의 입장에 의해 이루어진 근대적인 행위였던 게 달랐던 것이다.'' [이광수, 동인도회사의 식민지배 100년이 남긴 것, 2007:43]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인도의 농업을 몰락시킨 것은 곧 인도의 산업 구조를 바꿔놓은 것이었다. 초기에 동인도회사가 뱅갈과의 무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인도의 면 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동인도회사가 이 지역 정부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이후

이러한 맥락에서 개괄되어야 한다.

5) 페르시아어로 '토지 소유자'라는 뜻이다. 18세기 후반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납세액을 매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조징수 청부인을 진짜 토지 소유자로 하고 10년간 납세액의 평균을 영구적인 세율로 정하였다. 이것을 자민다르제라고 하며, 벵골·비하르·안드라프라데시 등의 각주에서 실시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민다르 [Zamindar] (두산백과)

부터 뱅갈의 면 산업은 수출의 길이 막혀버렸고 반면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 쏟아져 나온 면제품은 인도 시장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 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설된 철도를 통해 값 싼 영국 제품들이 전국을 장악하였다. 그러면서 뱅갈 면제품의 가장 큰 구매 세력인 토후 군주가 몰락하고 결국 가내 수공업 중심의 산업 전체가 몰락하였다.

그러면서 인도는 전통적 농업 사회에서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하였다. 이로써 인도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원자재와 인디고, 차, 아편 등의 플랜테이션 작물만을 생산 보급하는 전형적인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다. 동인도회사의 최대 이익은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입하는 차 무역에서 나왔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차를 수입하기 위해 막대한 은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빠져 나갔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뱅갈 지역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 하여 그 자금을 충당하였다. 그러면서 동인도회사는 뱅갈 로부터 아편을 재배 확보한 후 중국 사회에 밀수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량 유통시켰고, 그 후 청나라 정부와 아편전쟁을 치렀으며 그 결과 홍콩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도에서의 플랜테이션 경작이 중국이라는 또 다른 시장을 식민지로 개척하는 역할을 한 셈이었다. 동인도회사는 인도의 면산업과 농업을 파괴하고 그 위에 플랜테이션을 널리 도입하였다. 플랜테이션은 인도가 농업 식민지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Ⅲ.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 과정

Ⅲ-1. 근대 자본주의와 세계체제론, 그 안의 플랜테이션 농업

"서양 사람들은 마치 자본주의의 발전을 서양 근대문명의 본질적인 하나의 구성요소로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유럽문명이 만들어낸 독특한 산물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기초가 마련된 16세기 이후의 유럽경제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막스나 베버 같은 19세기 대학자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지적 노력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토인비나 폴라니, 브로델 같은 20세기 서양의 유명한 역사가들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마찬가지 맥락일 것이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여러 이유로 오직 근대 유럽에서만 발전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오늘날 전 지구가 하나의 경제체제 안에 포섭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하나의 경제적 체제에 묶여 있다는 생각은 19세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보다 정교한 이론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월러스틴이 16세기 이후 세계 경제의 발전을 '세계체제' 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데서 비롯했다. 이 개념은 만들어진 지 오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월러스틴이 그것을 갖고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지배-예속 관계를 역사 과정 속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상당한 설득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6]을 통해 16-18세기의 유럽과 비유럽 경제의 관계와 플랜테이션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세계체제론은 근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했고, 종속이론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랜테이션 농업도 구조적인 맥락에서 볼때

6) 미국 좌파 지식인의 선두주자인 월러스틴의 이론. 사회연구의 가장 적합한 분석단위가 '국가'가 아닌 '역사적 세계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세계체제론은 사회과학과 역사학의 다양한 전통에 입각하여 사회 변동의 거시 구조를 밝히려는 접근방법이다.

종속화로써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다. 종속이론이란 50~ 60년대에 맑시즘[7]의 영향을 받아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구조적인 지배, 예속 관계를 밝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려 한 이론이다.'' [윌러스틴, 근대세계체제 Ⅰ,1974:84]
즉, 선진국과 제3세계 사이의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관계를 폭로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여기서 플랜테이션 농업이나 제3세계의 종속은 16세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50~1640년 시기에 서유럽은 자본주의의 기초를 처음 확립했고 포르투갈의 브라질 지배와 영국의 인도지배 같은 짧은 기간 내에 전 세계의 많은 지역들을 예속시켰다.
이렇게 세계가 하나의 경제의 틀로 묶인 것을 그는 세계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중심부에 교집합 형태로 있는 것은 당연히 서유럽이고,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보았을 때,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식민 지배자, 과두지배, 대농장주, 그리고 오늘날에 이러서는 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을 포함할 수가 있다. 그 주위에 반주변부, 또 그 바깥으로는 주변부가 둘러싸고 있으며 중심부와 반주변부, 주변부 사이에는 착취와 예속관계가 만들어진다. 플랜테이션 농업도 같은 맥락이다. 오늘날 제 3세계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수백 년 동안 중심부의 착취를 받아온 주변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500년 전부터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상태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인도나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런 강고한 예속관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15세기 말에 봉건경제의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유럽이 문제의 해결을 외부로의 팽창과 상업팽창에서 찾았고 거기에서 성공했기 때문이다. 즉 아메리카로의 진출, 아시아 무역, 유럽 내부 무역의 증대가 그 결과이다. 그리하여 지역적인 노동 분업과 국가 사이의 힘의 차이에 의해 부등가 교환[8] 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한 세기라는 짧은 동안에 만들어졌다. 예를 들자면, 기술이나 자본의 차이, 국가의 힘의 차이가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브라질의 커피 한 트럭분과 대형 냉장고 한 대가 같은 가격에 팔릴 때, 커피 생산에 훨씬 많은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 갈 것은 뻔하다. 이 경우 기술과 자본의 차이에 따라 노동력의 부등가교환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지역이 착취를 당하게 된다. 그 결과 중심부, 주변부, 반주변부의 삼중적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플랜테이션 농업 같은 것은 필수불가결하게 만들어 진 시스템인 것이다.''[윌러스틴, 근대세계체제 Ⅰ,1974:112]

---

7) (독일어: Marxismus) 또는 마르크시즘(영어: Marxism) 혹은 엥겔스식 표현으로 과학적 사회주의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경제학자, 언론인, 혁명가였던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기반을 둔 사회이론 및 정치 행위이다. 맑스주의, 맑시즘(학계 관용어)이라고도 부른다. 마르크스는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의 철학,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19세기 프랑스 사회주의 및 파리 꼬뮌에 기초,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공상적 사회주의 및 프루동의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공산주의 국가 밖에서의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규모는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와 인도와 네팔과 일본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작은 편이다. -위키백과

8) 부등가 교환이란 여러 조건에 의해 다른 노동량이 투입되는 상품이 같은 가격으로 교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불평등한 교환을 말한다.

<출처: 윌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이광근 옮김 서울신문 2005-04-09 조태성기자>

영국과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강력한 국가와 가장 이익이 남는 경제활동과 가장 효과적인 노동방식이 자리 잡았다. 따라서 다른 지역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우월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과 남아시아의 인도 등 주변의 많은 지역으로 구성되는 주변부에서는 노예제나 농노제에 의해 비효율적이지만 싸게 생산되는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인한 곡물,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중심부가 이익이 나는 활동에 특화하고 주변부를 가차 없이 수탈하도록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주변부는 정치구조나 경제활동, 노동지배 양식에서 그 중간적 성격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나 노동 형태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 중심부에서는 공업과 특화된 농업이 이루어지나 주변부에서는 상품 작물과 유럽의 기호식품으로서의, 단일경작이 나타난다. 이것은 면화나 설탕, 커피, 고무 등 원자재로 중심부에 팔기 위한 플랜테이션 작물들이다.

결국 주변부의 중심부로 이익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구조이다. 그리하여 서유럽을 중심부로 16-18세기에 확립된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는 1750년 이후의 영국의 산업혁명과 19세기의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확대되어 19세기 말에는 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 전 세계를 포괄하는 말 그대로의 세계체제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여전히 플랜테이션 농업의 구조에서 종속화 되고 인도와 브라질은 벗어날 수 없는 구조에 놓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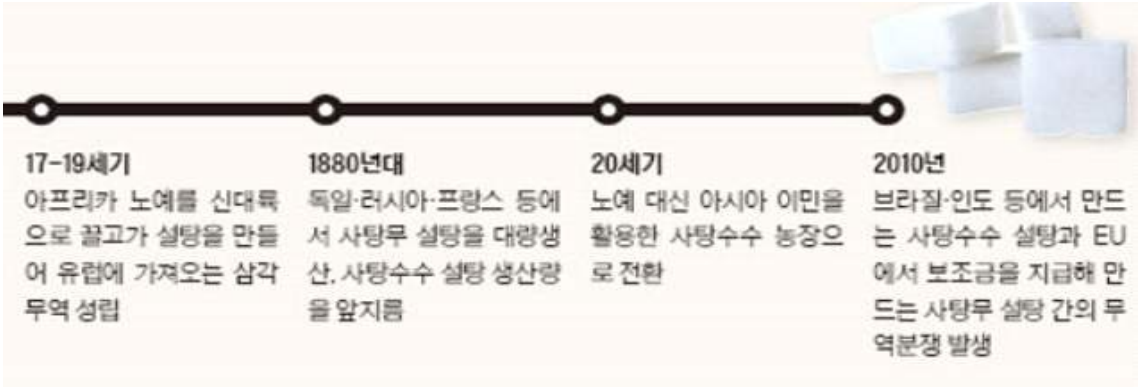
Ⅲ-2. 잔혹한 설탕이 이룩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인도는 설탕 소비국가 1위이며, 생산은 2위 국가이다. 또한, 브라질은 설탕 생산 최대국가이기도 하다. 사탕수수의 원산지는 아시아, 그중에서 인도이다. 약 2500년 전부터 재배되었으며, 설탕의 조상이 되는 야생종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는 않다. 현재는 브라질, 인도를 포함한 세계 여러 곳에서 주로 플랜테이션으로 재배가 된다. 사탕수수 재배는 중국과 인도에서 기원전 500년 이전에 처음 시작되었고, 기원전 325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이 인도에서 '벌에서 얻지 않은 꿀'에 대해서 언급했다. 설탕재배는 점점 서쪽으로 퍼져나가서 페르시아, 이집트, 시칠리아와 키프로스, 에스파냐를 거쳐 나중에는 마데이라제도와 카나리아제도, 북아메리카, 멕시코, 브라질에서도 이루어졌고, 16세기 초에는 드디어 카리브해 연안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서인도제도에 처음으로 사탕수수를 들여온 유럽인들, 특히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실행하였고,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와 삼각무역을 자행했다. 노예노동 위에 선 유럽 설탕의 달콤함이 과연 얼마정도인지 가늠하긴 어렵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 쓰디쓴 맛이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설탕을 넣지 않고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커피 소비가 확대되면서, 설탕 수요가 덩달아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커피의 플랜테이션 농업의 증가와 설탕의 플랜테이션 농업의 증가는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다. 덕분에 설탕은 18세기 말 유럽 사회에서 일상적인 소비재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같은 시기 노예무역으로 이루어진 플랜테이션 농업도 절정에 달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설탕의 역사는 플랜테이션 농업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커피와 설탕 플랜테이션 농업에 있어서 한쪽 대륙 사람들이 누리는 달콤함은 건너편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착취로 쏟은 피의 대가였다.

기원전 1세기, 폴리네시아 산 사탕수수가 처음으로 신대륙 땅에 들어왔다. 신대륙에서 사탕



<출처: 설탕의 역사, 중앙선데이 김창우 2010.3.17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

수수 가공 공정이 개발되는 한편, 대규모 노예 노동력에 의존하는 이른바 플랜테이션 방식이 탄생했다. 플랜테이션 생산 방식은 이란·이라크·이집트·모로코를 거치며 동에서 서로 널리 전파됐다. 급기야 유럽인은 카나리아제도의 마데이라 섬과 브라질, 서인도제도까지 플랜테이션 방식을 도입했다.

17세기 영국령 바베이도스 섬에서 시작된 설탕 경제는 자메이카, 생도맹그,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쿠바 등 여러 섬으로 전파됐다. 과거 상업적인 목적으로 담배·면화·인디고 등을 재배하던 소규모 농장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수출용 설탕을 생산하는 외국자본 소유의 대형 플랜테이션 농장이 들어선 것이다. 바야흐로 이때부터 플랜테이션 농업의 결정체인 설탕이 왕으로 대접받는 단일 특화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리하여 1660년대 바베이도스 섬 내 경작 가능한 땅은 모조리 사탕수수 재배에 동원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1800년대 중반 인도와 1500년대부터 시작된 브라질까지 플랜테이션 농업은 성행했다. 설탕 경제 모델이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규모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플랜테이션 농장 일은 너무 고되서, 노동자의 수명은 기껏해야 7~10년을 넘기지 못했다. 설탕은 역사적으로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동시에 무역 세계화가 남긴 가장 어두운 그늘을 상징하기도 한다. 누군가의 부가 다른 누군가의 착취를 통해 축적됐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메커니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1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브라질이나 인도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노동자의 삶은 거의 노예 생활과 다를 바 없다. 오랜 시간 동안 설탕의 채취를 위한 플랜테이션 농업이 잔혹한 노동에 의해서 구현되

었고, 현재에도 이른다는 사실의 피압박 설움이 베어 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500년에 최초의 유럽 선박이 브라질에 당도했을 때, 페드로 카브랄은 고국 포르투갈에 공급할 향신료를 구매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돌아 아시아로 항해하려고 분투하고 있었는데, 해류는 대신에 그를 브라질로 이끌었다. 똑같은 강력한 해류로 인해 대서양을 넘어 브라질로 노예를 쉽게 데려올 수 있었고 이후 400여 년 동안 300만여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인들이 브라질로 끌려왔다. 속설에 따르면 "설탕이 없었다면 브라질이 없었을 것이고, 노예가 없었다면 설탕이 없었을 것이고, 앙골라가 없었다면 노예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일반인들이 설탕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16세기 이후다. 인도 같은 경우, 영국은 카스트를 이용해 불가촉천민이나 낮은 카스트 계급을 이용하여 플랜테이션 농업을 강제로 시켰고, 값싼 노동력과 신대륙의 식민지라는 광활한 땅을 활용해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설탕은 면직물, 커피와 함께 노예무역을 낳은 세계상품인 셈이다. 플랜테이션을 통해 공급된 값싼 설탕은 영국 산업혁명의 밑거름이 됐다. 설탕을 듬뿍 탄 홍차와 귀리에 우유와 설탕을 섞은 죽이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아침식사가 된 것이다. 오후에도 홍차와 설탕과자를 함께 먹는 티 브레이크 관습이 생겼다. 영국인들은 전체 칼로리의 15~20%를 설탕에서 얻었다. 따라서 영국의 인도수탈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브라질의 경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이 한때 최대 설탕 생산지였지만, 일시 브라질을 점령했던 네덜란드인들이 이곳에서 축출된 것이 계기가 되어 카리브 해의 여러 설탕 들이 사탕수수 재배의 최적지로 떠올랐다.

브라질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업의 역사에서 17세기 중엽이 결정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점 이후로 아프리카 노예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고 플랜테이션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예컨대 바베이도스에서는 1660년대까지 유럽인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아프리카 노예 노동이 더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볼타강 동쪽으로부터 오늘날 라고스에 이르는 지역에서 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으로 많은 노예를 실어 보냈는데, 이곳을 포르투갈 인들은 미나 해안이라고 불렀지만 영어로는 더 솔직하게 노예해안이라고 불렀다.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거의 없었으므로 세계적인 설탕 수요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 규모의 확대에만 의존했고 이는 곧 노예무역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Ⅲ-3. 세계로 퍼진 커피 향

매년 세계는 700만 톤의 커피를 생산하고 4천억 잔의 커피를 마신다. 100ml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커피콩은 100개, 인도와 브라질의 커피콩 100개의 평균 현지 가격은 10원 남짓이다. 이윤의 1%는 소규모 커피 재배농가의 몫이며, 대부분의 이윤의 99%는 미국의 거대커피회사, 소매업자, 중간거래상의 몫이다.1%에 속하는 전 세계 커피 재배종사자는 50여 개국 2천만 명, 커피 수출 상위국가 1,2위는 브라질과 인도이다.

<출처: http://cameciob.hubpages.com/hub/Brazilian-Coffee Coffee from Brazil >

그들의 대부분은 극빈자들이며 그들 중 상당수는 어린이다. 인도와 브라질은 사회적 양극화

가 뚜렷한 나라이다. 전통 사회가 몰락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도입되면서 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처로서 새로운 구매능력이 필요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커피의 역사에서 20세기의 3분의 1은 브라질의 독재로 특정 지을 수 있다. 1906년,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커피의 97%가량을 생산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브라질은 커피생산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커피의 의해 종속되었다는 사실이다. 말 그대로 브라질에서는 커피가 주인인 셈이었다. 커피 플랜테이션 생산국으로서 브라질은 토양과 기후, 정부형태, 그리고 노동조건이 맞아 떨어졌고, 이들 요인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인도와 브라질은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순환형 자급자족 농업에서 식민지 수탈을 겪으며, 제국주의적인 단작 경영, 소위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발전하였다. 영국 최초의 커피 하우스는 1650년 대학 도시인 옥스퍼드에서 탄생했다. 이를 계기로 2년 뒤엔 런던을 거쳐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유럽에서도 원두 커피콩이 가진 그 특유의 쓴 맛과 향기 그리고 잠을 쫓는 독특한 기능 등으로 때로는 당국에 의해 판매금지나 전매품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또한 오랜 세월 유럽의 전통 음료로 자리 잡아온 와인과 독일의 맥주가 커피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었다.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커피 향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일단 유럽에 퍼져 나간 커피향기는 유럽의 문화는 물론 경제 정치영역에 까지 커피의 본고장인 중동이나 아프리카를 훨씬 능가하는 폭발적 영향력을 지닌 문화 그 자체로 번져 나갔다. 그 매혹적인 향기와 맛은 유럽의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유럽 시민혁명의 사상적 산실이 카페라는 점에서 그 촉매제의 역할까지 했다. 그러나 그 문화가 다른 세계에 끼친 파급력을 결코 매혹적이거나 고소함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난다.

커피는 열대 또는 아열대 지방의 일부지역에서나 재배 가능한 작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것을 자급재배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고소하고 매혹적인 커피향기가 유럽의 카페와 가정으로 퍼져나가는 만큼 대표적으로 식민지인 인도와 브라질에 커피와 설탕의 플랜테이션을 확대시켜 갔다. 그래서 커피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금이 되어 지구상에 노예를 양산하게 되었다. 유럽의 예술문화와 혁명의 촉매제로 그윽히 피어오르던 커피향도 실은 식민지 플랜테이션의 노예노동자들이 풍긴 짙은 피땀 냄새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1823년 프랑스와 스페인의 전쟁을 앞두고 커피거래소가 값을 좌지우지 하고 있을 때 브라질 커피의 생산량은 급속으로 늘어났다. 열대태양의 혜택아래 오랜 세월동안

자라온 숲의 낙엽으로 퇴적된 비옥하고 순결한 다공성 토양이 커피재배 적지인데 브라질이야 말로 바로 이런 토양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이 같은 토질과 기후조건에다 브라질의 노동조건이 커피 생산량을 폭증시켰다. 브라질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은 그 악명 높은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의 서쪽해안과 동쪽해안으로부터 흑인 노예를 계속 수입했다. 그래서 1888년까지도 브라질에는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노예제도가 있었다. 결국 커피 단작재배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고, 순결한 열대의 처녀림과 처녀지를 파괴하였다. 스타벅스 주식과 커피의 관계에 있어서, 비가 오게 될 경우 커피의 수요 증가와 관련해 매출상승으로 스타벅스 주식과 커피 작물에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지만, 노동자 측면에서는 일의 생산성이 떨어져 일을 할 수가 없어 노동과 임금이 떨어지는 구조에 있다. 전체 생산량과 임금에 관계에 있어서 생산량이 줄게 되면 커피 가격은 상승하여 그 이익은 보존하게 되지만, 노동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도 플랜테이션 농업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 잔의 커피는 경이롭고 놀라운, 관계의 집합체이다.

Ⅳ. 플랜테이션 농업의 폐해

Ⅳ-1. 단일작물 재배에 의한 경제종속과 식량 문제의 취약성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의 주 형태는 단작 재배이다. 이는 상품 작물이기도 하며, 그 나라 국민들이 먹고사는데 필요한 작물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작물이 재배되면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아주 싼값에 작물을 사들인다. 수출용 상품 작물의 재배 면적 확대로 작물 생산국의 식량 작물 재배가 위축되고 식량 부족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광활한 토지와 기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식량부문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한다. 2014년 세계 식량안보지수(GFSI)에서 인도는 상대적으로 광활한 땅과 농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최하를 기록했다. 1위 미국이 약 90점을 받은 반면 인도는 45점으로 2배 차이가 난다. 브라질도 식량안보점수가 중위권 정도이며, 최근 콩과 옥수수 수입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초 세계 곡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식량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지난 2000년 이전의 식량문제는 전체 수요량에 대한 공급량의 부족에서 온 문제가 아니라 빈곤국가, 빈곤층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문제였다면, 2000년 이후부터 발생한 식량문제는 절대공급량의 감소로부터 기인하게 된다. 2000년 이후로 세계 곡물 재고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USDA의 2008년 전망 세계 곡물 재고율은 14.9%로 적정 재고율(16~17%)를 밑돌게 된다. 즉 소비량의 증가를 생산량이 못 따라와 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의 선진국의 기호 식품으로서, 상품 작물을 위한 단일 재배는 문제점이 된다. 단일 경작으로 인해 자연재해나 국제 가격의 변동에 따른 피해를 입기 쉽고, 무엇보다도 선진국이나 다국적기업에 농업부문의 경제가 종속되고 국내 농업의 기반이 취약해 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단일 재배에 또 다른 문제점은 불안정한 국제 시장 가격에 국가 경제의 존망이 달려있다는 것이다. 단일 재배의 상품 작물의 가격은 비교적 고정된 수요에 반하여 공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면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아무리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하여도 이윤을 보장 받지 못한다. 거꾸로 공급 부족인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내

다 팔 수 있는 작물이 없는 경우 고 가격은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단일 작물 재배에 의한 플랜테이션 농업은 선진국이나 다국적 기업의 필요에 의해 종속화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식량자원 확보 부문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상품 작물을 수출하고 식량 자원을 수입하게 되는 형태가 지속되면, 결국 미래에는 단일 경작에 따른 종속화가 문제가 될 것이다. 국제적 분업이란 본래 각 국가가 자국에서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그렇게 생산된 자국의 최적 상품을 타국의 최적 상품과 교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 엄청난 제약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불평등한 교환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식민지 수탈이나 정치적 제재가 빈번히 사용되었다. 즉, 세계화와 국제적 분업 체제의 성장 과정에서 자유로운 선택이란 매우 드물었고, 대부분의 경우 선택은 노골적인 힘에 의한 강요 또는 더 강력한 국가들에 의한 시장 지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있어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지, 분명 가늠해봐야 할 문제이다. 또 플랜테이션 농업은 경제종속에 있어 신 식민주의를 만든다.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틀 내에서 자본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국주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적 후진성과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불균등하고 종속적인 위치에 기반 한다. 신 식민주의는 구식민정책의 파탄과 제국주의의 식민지체제 붕괴의 결과로서 나타났다. 신식민주의의 물질적 기초는 인도와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자본주의적 국제 분업체계에 편입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로 제국주의적 독점체인 외국자본이 발전도상국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점 자본가는 세계자본주의적 생산의 산업적, 농업적 부속물로 만들려 한다. 또 생산물의 주문 감소, 수입할당제, 고관세율을 통해 세계자본주의시장에 대해 가격정책으로 발전도상국의 생산을 지배한다. 결국 플랜테이션 농업은 제국주의적 착취에 종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플랜테이션 단작재배를 지속하는 한 인도와 브라질은 이 굴레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Ⅳ-2. 자연환경 파괴 문제

물의 대량소비와 오염 토양의 피폐, 사막화, 새로운 삼림벌채,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상품 가치가 있는 특정작물에 치우쳐 토종재배종의 다양성 상실 등 플랜테이션 농업은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의 주범이 된다. 플랜테이션 농업은 단작을 한다. 단작이라는 것은 단일 작물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재배한다는 것인데, 농업에서 단작은 곧 병충해에 취약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나나를 좋아하는 바이러스나 벌레가 엄습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변에 단일 작물은 그들의 쉬운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출처: 브라질 아마존 산림 벌채:https://www.google.co.kr/search?q=%EC%91220%3B8)

또한, 한 작물을 지속적으로 심게 되면 연작장애가 일어나 병충해에 약하게 된다. 또한, 산림파괴는 지구 온난화를 증대시키고 기후 패턴을 변화 시킨다. 플랜테이션 농업은 환경 생태계를 지탱하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큰 힘을 갖고 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인간의 욕심이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서로 의존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 생태계에서 어느 한 생명을 파괴하게 되면 당연히 인간

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안다고 해도 자신은 예외 일 것으로 생각한다.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눈앞에 경제적 영향을 당장 수치화 할 수 없기에 그렇지,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의 앗삼 지역과 비하르 지방에서는 플랜테이션 단작재배로 인한 지하수 유출로 인해 물 부족에 직면해있다. 단일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자 농약, 비료를 뿌리고 작물 재배에 지하수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또한, 브라질의 아마존도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해 산림을 태우거나 벌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가격의 국제가격 하락과 대규모 플랜테이션의 가격경쟁에서 밀린 인도와 브라질의 노동자들은 결국 상품작물을 접고 끼니마다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려해도 플랜테이션 농업의 영향으로 토질이 건조해지고 숲이 벌채되어 다시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살충제와 제초제 같은 농약은 열대림을 불태우고 들어선 주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소를 끊임없이 내뿜는다.

플랜테이션 농업의 확장은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도 파괴된다. 열대우림 지역이나 산림 지역에서 다국적 기업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는 환금작물들을 만들고자 산림을 벌채한 후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다. 대자연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무시한 이런 플랜테이션 농업의 획일화는 결국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항암제 등 의약품의 20%가 식물에서 얻어져 생태계 보전이 개발 통한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나와 있다. 현재 나와 있는 의약품의 20% 정도가 지구에 살고 있는 식물로부터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 설사 지금 당장 이용되지는 않더라도 미래에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주변의 이름 모를 풀이나 나무로부터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핵심 물질을 추출하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는 생태계를 개발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이 미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두고 '준 옵션가치'라고 한다.

'준 옵션가치'가 크면 클수록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개발보다는 보전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구 전체 네이처(Nature)에 실린 코스탄자 등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화폐 기준으로 생태계 가치 연 평균 38조 달러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이 수치는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창출해 낸 글로벌 국민총생산(GNP)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생태계의 보전과 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해 보면, 보전을 통해 얻는 이익은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가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실증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인도에서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위해 열대우림을 벌목해서 얻는 경제적 가치는, 열대 우림을 보전하면서 일부만 벌목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벌목은 열대 우림이 지니고 있는 공익적 기능토사유출 방지와 홍수 조절 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하면, 현재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인해 하루 평균 140종의 생물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또한, 2002년에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한 논문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는 자연 생태계에 대해 적극적인 보전 노력을 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가 비용의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 셈이다.
생태계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지, 플랜테이션 농업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인지는 구분해야 할 문제이다.

Ⅳ-3. 소수에 의한 대토지 소유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출처:브라질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삶의조건: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지.제16권제2호(2003.12)

위에 표를 보면, 인도나 브라질의 경우 저런 형태의 구조로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산구조가 절대 공정한 게임이 아니지만, 반복되고 있는 현실들이다. 맨 상위 구조에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나 다국적기업을 말하며, 대형농장은 대농장주를 의미하며, 공급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플랜테이션 상품 작물의 이윤은 거의 이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소규모자영농은 대부분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빚을 내어 개간을 한 뒤 빚을 갚는 형태의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제일 아래 지배구조에 위치하는 계절노동자는 생산구조에서 가장 하위 층에 해당되며, 최저생계비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가장 심각한 처우에 놓인 사람들이다.
사실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의 원인은 척박한 땅과 기후가 주된 원인이 아니다. 환경뿐 만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에 연계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양극화는 브라질이나 인도같이 유럽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식민지였던 이 나라들에서는 플렌테이션 농업이 산업의 주를 이루었다. 이런 나라들의 구조적인 문제는 식민지에서 벗어났음에도 나라의 산업이 플렌테이션 농업에 집중 되어있다는 것과 그로인해 사회적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플랜테이션의 농업의 작물들은 과거 식민지지배에 있던 나라들의 필요에 의해 재배되었던

작물이다. 때문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가장 적절한 시장이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나라가 된다. 이 작물들은 그 나라 국민들이 먹고사는데 필요한 작물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작물이 재배되면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아주싼값에 작물을 사들인다. 때문에 하부지배구조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은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자연스레 어려서부터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몰린다. 교육 받지 못한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들처럼 저임금의 노동자가 되고 가난은 대물림된다.

인도의 경우 카스트의 최하계층인 불가촉천민의 경우 '다르마'라고 하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직업이 세습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플랜테이션 노동자인 경우 아들의 직업도 당연히 노동자가 된다. 계급적으로 최 아래에 놓여있는 카스트 계급은 계층의 상향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카스트가 높을 경우 더 잘살고 카스트가 낮을 경우 더 못살게 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 인도의 대농장주들을 '대 자민다르' 라고 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영국의 식민지 시절 하수인 노릇을 하던 상층 카스트계급이 대부분이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플랜테이션 노동자 계층의 빈곤은 더 심해지고 과두지배계급이나 대농장주는 더 잘사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뚜렷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소수에 의한 대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과두재벌 계급과 상위 카스트를 제외하고는 플랜테이션 농업은 심각한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결국 플렌테이션 농업은 가난의 덫이며, 소수의 자본가가 대부분의 이윤을 거머쥐는 형태이며, 노동자의 몫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설탕이나 커피 등 플랜테이션 상품 작물의 국제 시세가 떨어지면 상품 작물의 공급을 줄여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노동자의 몫도 줄어들고, 계절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설령 작물에 대한 국제 시세가 상승한다고 해도 노동자의 몫은 늘어나지가 않는다.

브라질의 경우를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것들은 모두 브라질에는 해로운 정책들이다. 브라질의 경제 구조는 열악한 농업 플랜테이션과 왜곡된 산업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농산물의 가격은 공산품 가격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나마도 토지 소유가 극소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들의 생활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왜곡된 산업 구조 하에서는 실업이 만연하고, 상품들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아서 교역 조건은 매우 악화 될 수밖에 없다. 인도나 브라질이나 플랜테이션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은 토지 개혁이나, 더 심하게는 어떤 형태든 사회 혁명이 필요하다.

Ⅳ-4. 자본주의 체제의 주변부로 전락과 바이오연료의 명과 암

과거 유럽의 식민지 수탈에 있어서 금, 은의 산출량 저하와 함께 수탈의 양상은 농업부분으로 전이되었다. 그것은 인도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대표되는 플렌테이션의 등장이었다. 카카오, 면화, 사탕, 커피로 대표되는 각 지역별 단작작물의 재배는 지력 강탈적 지배로 인하여 심각한 식량위기를 불러왔다. 이러한 단작재배는 국제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고욕은 비례하여 늘어났다. 게다가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은 이내 노동자들의 몫이 되어 빈곤의 덫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대량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노동자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하였다. 유럽의 중상주의는 이를 통해서 배양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증기기관의 발명과 같은 유럽발전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토지의 유익한 경작을 압도하게

되었다. 대규모의 봉건적 대토지 소유자의 등장은 인도와 브라질의 정치체제를 과두적 지배체제로 정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원료공급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분업이라는 가면 아래, 유럽에 대한 종속체제만 강화시켰을 뿐이다. 봉건적 지주에게 있어서 노예의 부양보다 임금노동의 노예적 상황에 빠진 농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때, 노예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그 본질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또한 종속체제는 단작재배라는 상황에 의하여 국제시세에 의하여 사회불안을 야기 시켰고 그것은 독재체제로 연결된 것이다.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의 노동력과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를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결국 재앙이었다. 말하자면 인도와 브라질의 풍요로움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비운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유럽이 자영농을 육성함에 비하여 인도와 브라질의 봉건적 대농장주의 권익을 보호했던 것도 그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플랜테이션 농업에 있어서 인도와 브라질은 단순한 원자재 공급자에 불과했고, 국제시세는 선진국에 의해서 조종되었다. 단순한 원료공급의 역할로 인하여 인도와 브라질은 자체의 산업기반을 형성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러한 종속의 사슬을 끊을 수 없었다.

결국 브라질과 인도의 독립은 부유한 대토지 소유자들과 탐욕스러운 무역상인의 권력독점을 영속화했을 뿐이었다.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이후 자신들의 힘이 강대한 이후에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현대에 와서 종속은 단절되지 않았고, 질적 변화만 있을 뿐이다. 선진국들은 다국적기업과 세계은행, IMF를 통한 브라질과 인도에 대한 종속적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할 뿐이었다.

결국, 현지 투자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플랜테이션 농업은 인도와 브라질의 빈곤을 재생산했다. 또한, 바이오연료 개발에 따른 플랜테이션 농업의 확대에 대해서도 그 이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바이오 연료는 밀, 보리, 옥수수, 사탕수수(바이오에탄올), 콩(바이오디젤)과 같은 먹을거리 작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해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형 승용차의 연료 탱크를 바이오에탄올로 단 한 번 채우는 데 소요되는 옥수수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과 같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8억 명과 2달러도 못 미치는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30억 명이 작물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점이 문제다. 지난 몇 년간 먹을거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이유는 바이오연료 개발에 따른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상승과 맞물려있다. 세계 식량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플랜테이션 농업의 상품 작물 재배의 증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먹을거리로 쓰이지 않는 식물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 곳곳에서 실용화되고 있고, 보리, 밀, 옥수수 대신 볏짚, 밀집, 자투리 목재를 활용해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이 이미 덴마크 등에서 상용화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바이오 연료 원료 작물 중에서 수자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사탕수수다. 대개 옥수수, 사탕수수는 재배할 때 자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 원료 작물로 적당치 않다.

그러나 브라질, 인도 등에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자 사탕수수 같은 원료 작물을 대량 재배하면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바이오 연료를 생산한다면 그것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그곳에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바이오 연료 원료 작물을 대량 재배한다면 먹을거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랜테이션 농업은 지속되고 있다. 또, 현재 유럽연합(EU)이 바이오 연료 생산에 앞장서는 것은 바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EU는 2020년까지 수송 연료의 10%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런 EU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

다. 바이오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왜 선진국들은 바이오연료 개발의 미명하에 플랜테이션 농업을 지속하는 것일까? 그것은 강대국들과 다국적기업들이 국제 원자재 시장의 투기자본을 일으키고, 원자재 파생상품시장을 조종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숨은 의도가 엿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리 대량의 투기자본으로 현물시장이나 상품시장의 원자재들을 사들인 후에 상품 작물들의 공급을 조정하여 시세를 폭등시켜 이윤을 챙기거나, 바이오연료 개발 미명하에 국제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고, 원자재 시장에서 그들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짜놓은 각본에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의 노동자들은 엑스트라로 출연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플랜테이션 농업은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은 상품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현상이 지속되어 한 국가의 경쟁력을 낮게 만들 수가 있다. 더불어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에 의한 경제위기의 가능성과, 식량자원주의에 대한 강대국들의 투기자본들이 과열되어 종속화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Ⅴ. 플랜테이션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

Ⅴ-1. 인도와 브라질의 토지개혁 (국유화)

여태껏 플랜테이션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플랜테이션 농업의 대안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국가가 토지개혁을 실행하고 부를 재분배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다만, 과거의 브라질 같은 경우 토지개혁에 실패했었고, 플랜테이션 농업은 여전히 인도와 브라질 국가에서 농업의 비중이 줄었다고 해도 성행중이다. 엘리트층과 자본주의 체제의 만남은 플랜테이션이 존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해도 무방하다. 브라질의 경우, 전체 토지의 46%를 1.6%의 인구가 소유한 나라다. 또, 경작 가능한 토지의 3분의2를 인구의 3%가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문제만큼 브라질의 양극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도 없다.
하지만, 그 씨앗이 식민지배기, 즉 브라질의 형성시기에 뿌려져서 이를 뽑아내고 토지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1862년 링컨 대통령 재임 당시 채택한 농지개혁법에 의해, 160만 명의 가구들에게 110만 제곱킬로미터의 농지를 불하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의 중산층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은 독립 이후 대규모의 토지개혁이 단행되지 않은 결과, 식민지 시대의 대토지 소유자들의 후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지주로 남아 있다. 브라질의 경우 토지 자체를 처음부터 유럽에서 넘어온 소수에게 불하하였고, 이들이 그 힘을 이용하여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내륙지방으로 자신의 영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는 점과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농을 중심으로 한 개혁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

(출처: 경제발전과 토지개혁의 상관도 W.B bank 2003.8)

다음은 2006년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다룬 경제발전과 토지개혁의 상관도를 보여 준다. 이에 따르면, 1960년에서 2000년까지 40년 동안 토지개혁을 잘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단연 돋보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과 대만과 중국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토지개혁이 가장 잘 되어 토지의 지니계수가 가장 낮다.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토지가 공평하게 분배되었다는 말이다. 반대로 인도는 중간 정도에 속하고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와 브라질은 최하위에 포함되어 있다.

Figure 8.1 Unequal initial land distributions go together with slower economic growth

Source: World Bank (2003i).
Note: Land distribution is measured using the Gini coefficient.

일반적으로 아시아 최대의 민주국가로 알려졌지만 인도는 토지지니계수가 공산주의 국가였던 베트남과 비슷하다. 인도는 1953년부터 1979년까지 줄기차게 토지를 개혁했지만, 혜택받은 농민은 4%, 분배 토지는 3%에 지나지 않는다. 위에서 보면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은 토지지니계수가 모두 0.6을 넘는다. 약 0.8이 평균치다. 프랑스 혁명에 뒤따른 토지개혁 외에는 토지개혁이 아예 없었던 유럽은 대체로 토지의 불평등지수가 매우 높다. 그나마 프랑스가 0.53으로 낮은 편이고, 영국 0.67, 독일 0.68, 이태리 0.78, 스페인 0.86이다. 미국도 매우 높아 0.74다. 소득의 지니계수가 0.5를 넘으면 심각한 사회불안으로 나라 전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뒤숭숭해지는데, 마찬가지로 농업이 주산업인 개도국에서는 토지의 지니계수가 0.5가 넘으면, 한 나라 안에 두 국민 즉 지주와 소작농이 늑대와 양의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 개도국에서는 산업화의 선제조건이 토지개혁이다. 그래야만 평등해진 국민이 동질감을 갖고 경제발전에 동참할 수 있다.

다만, 서구에서는 농업의 비중이 5% 이하이므로 토지의 불평등이 0.7을 넘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기업농의 확산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니까, 장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브라질과 인도의 토지개혁은 가능할까? 플랜테이션 농업의 하나의 대안으로 토지개혁이 단행되어 노동자 계층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적양극화가 해소 된다면, 플랜테이션 농업을 마냥 문제점으로 두고 볼 수도 없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농업 국가인 브라질과 인도가 현실적인 문제도 적지 않지만, 토지개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과거와 현재는 다르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브라질의 경우, 빈민구제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 정책을 여전히 추진 중이며, 이는 브라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브라질 총선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되면서, 노동자 계층이나 빈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기회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또한, 뿌리 깊은 브라질의 토지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단체가 '무토지농민단체'(MST)이다. 이들은 브라질 민주 헌법 184조와 186조에 명시된 토지의 사회적 이용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경제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를 통한 토지 재분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내 MST는 150만 회원을 넘게 거느리고 브라질 27개 행정구역 중 23개 지역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압력단체이다. 룰라 대통령 집권 이후 이들의 활동은 합법적인 성격을 얻어가고 있고, 이전 룰라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이들을 지원했다. 노동자당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연임을 했고, 이러한 토지 재분배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접점을 찾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 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인도의 경우, 이번의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당선됨에 따라, 토지 개혁의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전통적인 대 자민다르인 상층 카스트 계급의 대농장주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의 역할과 지위를 갖지 못한다. 카스트 계급이 법적으로 공식 철폐 되었고, 하층 카스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모디 총리가 강력하게 빈곤계층에 불리한 법을 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농업에 대한 비중의 감소와 나날이 늘어나는 인구로 식량부족에 직면한 인도가 플랜테이션 농업에 더 이상 좌지우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토지개혁위원회는 토지이용현황과 재분배 가능 토지의 확인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시키고 빈곤층에 토지배분을 정례화하는 법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최근 토지합병 관련법과 노동법 등 그동안 성장과 재분배에 있어 발목을 잡아왔던 제도들을 개혁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기대해본다면, 인도와 브라질이 정부차원에서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인식과 가난한 노동자계층의 빈곤의 악순환 문제를 토지개혁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다시 말하면 플랜테이션 농업의 국유화를 통한 재정립이라고 볼 수 있다.

Ⅴ-2. 다국적 자본의 랜드그랩 현상과 21세기형 플랜테이션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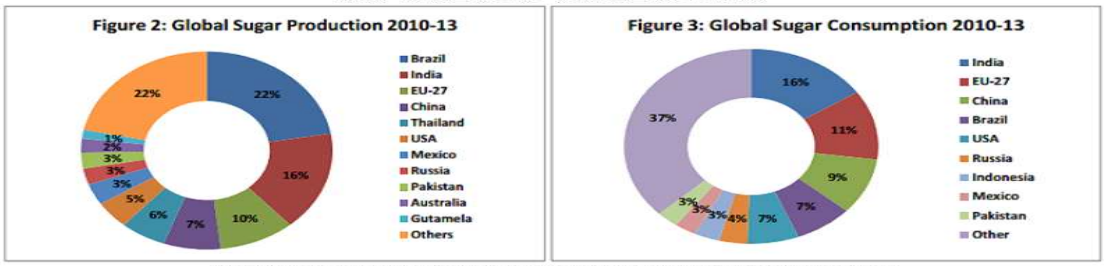
랜드그랩 현상은 어쩌면 다국적 자본의 21세기의 신식민화이다. 곡물가 폭등으로 선진국 자본의 제3세계 국가 토지 매입·장기 계약 등 '땅 뺏기'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자원 수탈한 지난 세기 식민지배 역사 반복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다국적 자본은 국적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형태로 더 많은 이윤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브라질은 토빈세나 외국자본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브라질은 얼마 전 토빈세를 폐지했으나, 주체가 선진국이 아닌 불분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식량자원이 향후 큰 중요성을 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으며,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업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과 인도에게는 다각도에서 보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지난 2월19일 인터넷 판에 올린 목록을 보면, 라이베리아 100%, 가봉 86%, 필리핀 49%, 시에라리온 41%, 우크라이나 36%, 파푸아뉴기니 33%, 모잠비크 28%, 우루과이·탄자니아 18%, 마다가스카르 10%가 2012년 말 기준으로, 나라별 경작 가능한 토지에 대한 외국 자본 소유 비율로 넘어 갔다. '라이베리아 100%'라고 쓰여 있으니, 그 나라의 농토 100%가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다. 이른바 '땅 뺏기' 형태의 랜드그랩[9] 현상이다. 인구 급증으로 인한 식량 수요 증가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자본이 제3세계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토지를 사들이거나 장기 임차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외국 자본의 이 같은 행태는 현지 주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화일 수 있다.

부유한 국가가 자국의 미래 식량 수급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농토를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는 행위.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편 식량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랜드그랩 현상이 지구촌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 것은 세계 식량시장이 폭등세로 치달았던 2007~2008년 이후부터다. 당시 사탕수수, 커피,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값이 2배 이상 치솟자, 식량 수출국들은 앞다퉈 자국 내 식량 값 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 반출 물량을 줄였다. 값은 뛰고 양은 줄었으니, 식량 수입국 처지에선 다급해질 수밖에 없

9) 브라운 미 지구정책연구소(EPI) 소장은 세계미래학회(WFS)가 내는 격월간 <퓨처리스트> 1·2월호에 기고한 '식량, 연료,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땅 뺏기'란 제목의 글에서 '랜드그랩'을 이렇게 정의했다.

었다. 주요 수출국들과 장기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나섰지만, 공급이 달리는 시장에서 공급자가 이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식량 수입 국가들이 차선책으로 찾아낸 게 나라 밖 땅에서 식량을 생산해 자국으로 들여오는 방법이었다. 랜드그랩 현상이 최근 5년 새 집중적으로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부족한 농토를 해외에서 보충하는 건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 남의 나라를 힘으로 차지한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땅에 세운 대규모 농장 플랜테이션이 그 사례다. 지난 150여 년 동안 농업 부문에서 이뤄진 대규모 해외투자는 주로 선진 개발국들이 사탕수수·차·고무·바나나 등 특정 열대작물을 중심으로 시도했다. 그러나 21세기 랜드그랩 현상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투자가 주요 곡물과 바이오연료 생산용 작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식량 자원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토지개혁이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플랜테이션 작물이나 곡물자원을 인도와 브라질이 국가차원에서 투자하고 장려한다면, 가장 풍부한 토지와 기후와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수요가 일정하거나 증가한다면, 이건 여태껏 문제점으로만 인식되었던 플랜테이션 농업이 하나의 경쟁력이자 무기로 탈바꿈 될 수도 있다. 국민의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의 형태로 대농장주나 선진자본을 충분히 압박할 수도 있다. 인도와 브라질 같은 경우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고, 두 국가 모두 이번 총선에서 인도는 빈곤계층과 하층 카스트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고, 브라질은 노동자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만연해있다.

2010~2013년 글로벌 설탕 생산량과 소비량



자료원: IGIDR(Indira Gandhi Institute of Development Research)

(출처: IGIDR (Indire Gandhi institute of Development Research)

위의 그래프는 대표적으로 인도와 브라질에서 성행하고 있는 설탕 플랜테이션 농업이다. 표를 보면, 인도와 브라질이 세계에서 설탕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2010년에서 13년까지 인도와 브라질은 자체적으로 바이오에탄올 연료개발목적으로 설탕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설탕을 공급하며 사실상 독점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Money control 인도의 설탕수요의 증가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 中)

또한, 인도는 설탕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대표적인 생산국가 이기도 하다. 공급에 있어서 내수 쪽의 많은 소비로 인한 공급량을 줄여 국제시장의 가격을 조정이 가능하고, 설탕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하다. 과거와 현재 미국의 농업 전술을 브라질과 인도 두 국가가 벤치마킹하여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나라 안에서 소득재분배는 주권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미 빈곤 계층에 대한 토지재분배에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고, 남은 것은 국가의 몫이다. 이미 다국적 자본들은 플랜테이션의 상품

순위	인도 설탕기업	순 매출액 (US달러)	시장 점유율
1	Shree Renuka Sugars	10억6천만 US달러	25.8%
2	Bajaj Hindusthan	7억5천만 US달러	18.1%
3	Balrampur Chini	5억4천만 US달러	13.2%
4	Dhampur Sugar Mills	2억5천만 US달러	6.2%
5	Bannari Amman Sugar Ltd	2억2천만 US달러	5.3%
6	Mawana Sugars	2억1천만 US달러	5.2%
7	Sakthi Sugars	1억9천만 US달러	4.4%
8	DCM Shriram Ind	1억8천만 US달러	3.8%
9	Oudh Sugar Mill	1억4천만 US달러	3.4%
10	Rajashree Sugar	1억3천만 US달러	3.3%

자료원 : Money Control

작물을 제외하고도 새로운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자본으로 잠식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2011년 1월 내놓은 최신 자료를 보자. 2008년 10월부터 1년 남짓 동안 랜드그랩으로 볼 수 있는 대규모 토지거래는 지구촌 전역에서 모두 464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거래 대상 토지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203건에 그친다. 이들 거래의 총면적만도 약 5700만ha, 최대 식량 수출국인 미국 전역의 옥수수와 밀 재배 면적을 훌쩍 넘는 규모다. 아예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고, 짧게는 25년에서 길게는 99년까지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다. 다국적 자본들의 무분별한 랜드그랩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회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가 무의미하며, 하나의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WTO의 보호정책이나 공정무역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각 나라는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는 형태가 정당화 될 것이고, UN에서는 다국적 자본의 불분명한 출처에 투기자본 방지를 촉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도와 브라질도 플랜테이션 농업의 종속을 끊을 수 있는 흐름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미 발전해 있는 인도와 브라질에게는 새로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상품이건, 수요가 일정하거나 증가한다면, 그 산업에는 경쟁력이 있다. 플랜테이션이 오히려 브라질과 인도에게는 큰 기회의 시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은 항상 증식되는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독점적 자본이 있다고 해도 수익이 더 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랜드그랩 현상은 기존에 플랜테이션 농업만으로 갈증을 느낀 다국적 자본의 향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플랜테이션 농업을 개혁하게 된다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연대할 가능성도 높다. 기존에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외부에서의 피해를 내부에서 삭감하여 임금을 줄이며, 노동자들의 몫을 삭감하는 형태의 노동의 착취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상향시켜주는 21세기 국가주도하에 플랜테이션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국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투자하지 않고, 자급자족경제로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산업을 키우지 못한 탓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당장 개혁을 한다면, 향후 수출산업과 외화획득으로서, 자국 농업부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제조건은 플랜테이션의 과거형이 아니라 조금 더 집약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의 21세기형 농업이 되어야 한다.

Ⅴ-3. 플랜테이션 농업의 여러 대안

플랜테이션 농업의 자체적인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토지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스 산토스[10]가 말한 이중사회구조를 띠는 플랜테이션 농업은 개혁

10) 산토스는 종속이론을 주장했는데, 서구적 시각인 근대화론과는 달리 제3세계에 속하는 남미의 발전경험의 시각이라는 점과 그 분석틀이 근대성의 확산이 아니라 저발전의 형성이라는 점에 주요 관심을 두고 있다.

없이는 종속적 관계에 놓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플랜테이션 농업의 대안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정무역의 필요성이나, 작물의 다각화 추진, 플랜테이션 작물의 WTO의 보호정책 추진, 유전자변형의 새로운 식량개발, 다국적 기업과 선진국의 투기자본 방지, 국가적 차원의 플랜테이션 노동자계층의 생계보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깊이 뿌리박혀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타파할 수는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실행이 된다면, 분명 위에서 말한 21세기형 플랜테이션 농업의 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이것들이 체계화 된다면, 인도와 브라질은 더 나아가 하나의 대안을 찾고, 향후 플랜테이션 농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이 중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반증 되고 있다. 향후 식량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모두가 인식하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분명 인도와 브라질은 세계에서 유래 없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종속화에 갇혀 있다. 따라서, 21세기형 플랜테이션 농업을 잘 활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해준다면 종속 헤게모니에서 벗어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뒷받침 되는 것이 페어트레이드나 작물의 다각화 추진, 투기자본 방지 등과 더불어 최근 한국과의 경제농업 협력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외교부가 농업 진흥청과 같이 브라질·페루·콜롬비아서 시행한 '농업 카라반' 사업은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 기술과 중남미의 풍부한 농업 자원을 연계하는 경제협력 모델의 추진이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바이오에너지 등 중남미 지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국가 간 기술 격차 해소를 목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농업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이 논문에서는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발달배경에 있어서 상품 작물을 대표하는 설탕과 커피 중심으로 인도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탕과 커피의 역사적인 부분에 거슬러 올라가 유럽의 식민지였던 두 국가에 고착되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확인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산업이 플랜테이션 농업에 집중되어 선진국이나 다국적 자본에 일부 종속되어 있는 현상과 취약성을 발견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근본이 토지 재분배나 개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과거가 아닌 현재 위치에서 예상하거나 기대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더불어 플랜테이션 농업의 여러 가지 대안으로 향후 21세기형 플랜테이션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국가주도의 발전 하에서 모색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았다. 향후 식량은 곧 무기가 되는 패러다임 속에서 식량자원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역할론을 강조했고, 그런 자원들을 국가 내부적으로 체계화 시키고 잘 관리해서 21세기형 플랜테이션의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세계 수요가 증가한다면, 플랜테이션 농업은 무기가 된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인도와 브라질은 토지재분배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세계적으로도 식량 자원의 안보에 각 나라가 심혈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총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토지개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현 시점이고,

---

1950년 말에서 60년대에 기존의 발전론인 서구의 근대화이론에 반발, 남미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생활에 바탕을 두고 저개발에 대한 원인 규명과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이론을 주장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속이론의 등장과 배경 (사상사개설, 1996.4.1, 사회문화연구소)

모든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인도에서도 카스트 철폐, 빈민 계층에 대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토지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브라질에서도 MST의 운동과 더불어 노동자당의 연임이 설득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성행하는 랜드 그랩 현상은 인도와 브라질을 자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는 예전만큼 약소국이 더 이상 아니다. GDP규모나 경제성장 속도,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종속의 고리를 끊고 플랜테이션 산업을 더욱 집약적이고 질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힘도 충분하다. 플랜테이션 농업을 철폐하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닌 21세기형 플랜테이션 농업을 국가적으로 주도하여 하나의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단일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농업 부분의 집약화와 식량자원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는 것은 어려움 점이 많다. 그러나 브라질과 인도 양국이 플랜테이션 농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빈민 계층의 '볼사 파밀리에'처럼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결론적으로, 플랜테이션 농업의 국가 주도적 육성과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민 계층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21세기형 플랜테이션 농업의 경쟁력을 가진 구조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브라질과 인도는 제조업 기반이 여타 다른 나라 보다 취약한 편이다. 다만, 노동력과 광활한 토지 등 풍부한 자연여건 환경에 따른 농업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얼마나 잘 육성하는 가가 향후 인도와 브라질의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하나의 경쟁력 방안도 있다. 남아시아 국가의 패권국인 인도와 중남미의 패권국인 브라질은 각 지역권에서 여타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지역협력체 SAARC나 남미공동시장의 MERCOSUR의 플랜테이션 농업 부문의 대외적인 공동협력은 다국적 자본의 힘의 논리를 막을 수 있다. 인도와 브라질이 인근 국가와 상생하여 독자적 힘이 아닌 나라들과의 연대로서, 지역 연맹체로 발전하게 되면, 국가 주도하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기존의 플랜테이션의 문제점을 제고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광활한 토지, 자연 여건 등이 담보되는 국가주도 협력의 대규모 집약농업이 가능해진다면, 다국적 자본이나 선진국에 휘둘리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참고문헌

< >

가와기타 미노루(2003), 박미화 옮김, 「설탕의 세계사」, 서울, 좋은책 만들기.

마크 애론슨, 마리나 부드호스(2013),설배환 옮김 「설탕 세계를 바꾸다」서울, 검둥소

백좌흠 ,이광수 ,김경학 공저 (1997),「내가 알고 싶은 인도 :사람·역사·문화바로읽기」서울, 한길사

시드니 민츠(1998), 김문호 옮김, 「설탕과 권력」 서울, 지호

존 유드킨(2006), 조진경 옮김 「설탕의 독」서울, 이지북

이광수(2003), 「인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부산,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이광수(2002), 「카스트 : 지속과 변화」 서울, 소나무

하인리히 E.야콥(2002), 박은영 옮김, 「커피의 역사」서울, 우물이 있는 집

<논문>

강경희(2002), "라틴아메리카의 '세계화' 논쟁pp.269-281 ", 서울,라틴아메리카연구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지
강동조(2014), "종속이론 :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자기 발견,pp.353-379", 부산, 경남사학회
박한울(2012), "세계 설탕산업 구조,세계농업, 제143호, pp.12-15 주요국의 설탕 생산, 소비, 교역량 2008-2012년" 서울, KOTRA
이광수(2012), "누가 인도 농민들을 집단 자살하게 했는가?" 친디아저널, 서울
,포스코경영연구소
이순철(2011),"인도의 산업화과정 심화에 따른 노동운동 및 사회적 갈등, pp.86-108" 서울, 아시아저널 제3호
<인터넷>
‘‘구드 세계 지도’’,http://blog.cyworld.com/wowbaek/214350 (1998)
“ 플랜테이션 환경파괴 사진”, http://blog.cyworld.com/wowbaek/214350(2014.10.01)
‘‘이광수의 '인도사로 한국 사회를 논하다' 동인도회사의 식민 지배 100년이 남긴 것’’,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6530 (2008.07.22)
‘‘한-중남미 경제협력 '농업'에서 가능성 찾는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1115052704639 (2014.11.15)